

“민법 개정안, 설교까지 영향 가능성... 종교 자유 위축 우려”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의 입장문 발표
‘공익 현저히 해하는 행위’ 등 포괄 규정 문제
자료 제출·현장 조사 등 개입 과도할 수 있어
종교 전반 규제 아닌 행위 중심 정밀 대응을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의(의장 김정석 감독회장)가 국회에 발의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의 자유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감독회의는 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비영리법인의 행정적 제재(감독, 해산, 재산 몰수)를 포함한 이 법안은 기존 민법 제

부에 부합하지 않고 충돌 우려가 있다”며 “제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사회적 종교단체 제재를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면 민법 개정이 아니라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감독회의는 국회에 발의된 해당 개정안이 종교법인의 정치 개입 제한과 공공성 강화를 취지로 하고 있다는 점에는 “일정

부분 공감할 수 있다”면서도, “종교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감독회의는 특히 법안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 “종교법인의 조직적 정치 개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 적용 범위가 불명확할 경우 설교와 신앙적 발언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신앙적 견해 표명과 조직적의도적 정치 개입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며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윤리를 언급하는 것까지 제한한다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에 포함된 포괄적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감독회의는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와 같은 조항은 해석의 여지가 넓어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불명확성은 종교단체로 하여금 스스로를 위축시키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조사권과 감독권과 관련하여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자료 제출 요구, 현장 조사, 출입 및 진술 요구 등의 권한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할 수 있으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종교 활동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제성을 수반하는 조사 행위는 헌법상 기본권과 충돌할 수 있는 만큼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교법인의 재산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교회의 재산은 신앙공동체의 헌신과 믿음이 축적된 공적 자산”이라며 “이를 일률적으로 국고에 귀속시키는 방식은 과도한 제재로 인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인 설립허가 취소와 같은 중대한 결정을 행정기관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구조는 권력 집중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독회의는 다만 “일부 종교 단체의 법인격 남용과 정치적 결탁, 반복적 위법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존재해 왔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해결 방식은 종교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법 행위를 중심으로 한 정밀하고 단계적인 법적 대응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감독회의는 ▲신앙적 발언과 조직적 정치 개입의 명확한 구분 ▲행위 중심의 규제 설계 ▲시정 명령·활동 제한·허가 취소 등 단계적 제재 ▲재산 처리 방식의 공익적 활용 방안 검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감독회의는 “정교분리는 종교를 배제하기 위한 원칙이 아니라 종교와 권력이 서로를 침해하지 않도록 지키는 자유의 장치”라며 “국회가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입법 과정을 통해 종교 자유와 공공성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God is good”... 미군 ‘한 명도 남기지 않는다’ 원칙 재조명

전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미군 모습에 세계 이목 집중

최근 이란에서 격추된 미군 전투기 조종사를 구출하기 위한 대규모 작전이 전개되면서, 미군의 오랜 원칙인 “한 명도 남겨두지 않는다(No one left behind)”는 신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구조 과정에서 사용된 암호 신호가 “God is good(하나님은 선하시다)”이었던 사실이 알려지며, 이번 작전은 군사적 의미를 넘어 문화·종교적 맥락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사에 따르면 미군은 적진 깊숙한 지역에 고립된 조종사를 구출하기 위해 최근 특수부대와 공중전력을 투입하는 대규모 작전을 감행했다. 구조 대상자는

격추 직후 탈출에 성공했지만, 적의 수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장시간 은신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구조팀과 조종사 사이에 확인용으로 사용된 신호가 “God is good”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구에 대해, 극한 상황 속에서 생존과 구조를 간절히 염원한 구조 대상자의 신앙이 직접적으로 나타난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한 명을 위해 모두가 움직인다

이번 작전은 단순한 전술적 선택이 아니라, 미군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조직 문화의 집약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군은 전통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전우를 버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다. 이는 전장에서의 신뢰와 사기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한 명이라도 버려질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질 경우 전체 조직의 결속력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포로가 된 병사가 적의 선전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 그리고 실종자 문제가 국내 정치와 여론에 미치는 영향 역시 이러한 원칙을 강화해온 요인으로 꼽힌다.

이 같은 원칙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군사 시스템으로 정착했다. 미군은 격추 조종사나 고립 병력을 구출하기 위한 ‘인원 구조 체계(Personnel Recovery)’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미 공군 구조대원이 헬기에서 하강하는 장면 ©미 공군

조 대상자가 이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 생존에 대한 믿음과 구조에 대한 신뢰가 결합된 상징적 장면으로 받아들여진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례가 미군 내부 문화와 미국 사회의 가치관이 맞아 있는 지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한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개인의 생명과 존엄을 강조하는 사회다. 이러한 인식은 군 조직에도 반영되어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이어진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가치관의 배경에 미국의 기독교, 특히 개신교 전통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성경 속 잃은 양의 비유처럼, 한 존재를 끝까지 찾아 내서는 서사는 한 명의 병사라도 반드시 구출하려는 미군의 태도와 상징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군사 원칙과 가치의 결합

물론 미군의 구조 원칙은 기본적으로 군사적 필요와 전략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작전에서 드러난 “God is good”이라는 신호처럼, 그 실행 방식과 상징에는 미국 사회의 문화·종교적 전통이 은연중에 스며들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란 남북관에서 펼쳐진 이번 구출 작전은 단순한 군사 작전을 넘어 “한 명을 위해 국가가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으로, 전 세계인의 이목을 미국이라는 나라에 다시 집중시키고 있다. 김진영 기자

- 지역 기독교 연합 단체
부활절 예배 이모저모 >> 2면
- 교계·선교계 3045 리더,
“협력의 동력은 ‘우정’ >> 7면
- 재즈 피아니스트 엘 도미
늬, 첫 찬양 앨범 발매 >> 24면

성누가회 힐링헨즈, 제6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개최

청춘 강연 통해
도전과 희망 메시지 전달

성누가회 산하 의료봉사 동아리 힐링헨즈가 최근 시흥 별관에서 제6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성누가회는 한국교회연합과 한국복음주의의료인협회 회원 단체로, 2002년부터 의료봉사, 선교, 의료봉사를 지속해 온 기독교 의료선교회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 신명섭 대표회장은 신입생들에게 확장시절 봉사 정신 함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힐링헨즈 창립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감지에 원장은 성누가회와 힐링헨즈의 연혁과 사역을 소개했다.

성누가회는 2006년부터 의료봉사를 시작해 성동구청과 서울시,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수상했으며, 한국교회연합으로부터 공로패를 받는 등 공로를 인정받아 왔다. 또한 통합교단 교회와 장신대, 학원복음화 인큐베이션, 몽골복음주의연맹, 원복음화 인큐베이션, 몽골복음주의연맹, 장지동 기자

인도복음주의연맹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힐링헨즈는 2018년 설립됐으며, 2021년부터 전국 대학생 동아리 연합 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정총신 팀장은 해외 및 국내 의료봉사, 독서클럽,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개그맨 이상훈이 힐링헨즈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상훈은 현재 개그콘서트에 출연 중이며, 장난감 유투버로도 활동하고 있다.

위촉식은 오리엔테이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됐으며, 신명섭 대표가 이상훈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상훈은 “힐링헨즈 홍보대사로 위촉돼 감사하고 영광스럽다”며 “단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향후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학생들과의 재회를 약속했다.

한편, 힐링헨즈는 올해도 다양한 봉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며, 오는 8월에는 몽골복음주의연맹과 함께 몽골 의료선교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지동 기자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힐링헨즈 제6기 신입생들과 관계자들이 시흥 별관에서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힐링헨즈

사통팔달 강원시대가 시작됩니다.

에타 통과(50분 예상)

1시간 25분

평택 ↔ 제천 ↔ 영월 ↔ 삼척

126.9km 29.9km 70.3km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서해에서 동해까지 2시간대로 가까워집니다.

강원특별자치도
GANGWON STATE